

창업기업 성과에 미치는 창업보육 지원 서비스 연구

황보운 (국민대학교 부교수)*

김재형 (서울산업진흥원 책임)**

국 문 요 약

본 연구는 창업지원제도의 수혜 받은 당시가 아닌 졸업 후 2년 이상 지난 시점에서 창업보육 지원서비스가 창업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데 목적이 있다. 실증 분석을 위해서 서울시가 지원하는 청년창업1000프로젝트 졸업 후 2년 이상 경과한 813명의 창업가들을 대상으로 조사하였다. 창업보육센터 입주기업들에게 제공하는 지원서비스들인 사무공간무상제공, 창업활동지원금 지원, 교육 및 코칭 지원, 전문 컨설팅 지원, 홍보 및 판로개척지원, 입주기업 간 협업지원을 독립변수로 하고 졸업 후 창업성과(창업성공만족도)를 종속변수로 하여 실증 분석을 실시하였다.

실증 분석을 결과는 창업기업들의 지원서비스 만족도 평균이 가장 낮게 나왔던 창업가의 입주사 간 협업지원에 대한 만족도가 창업성공만족도에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창업가의 창업활동지원금에 대한 만족도가 창업성공만족도에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의 시사점은 창업보육센터내 창업기업들의 창업 성공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창업 활동금 지원과 입주사 간 협업 지원에 더욱 집중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또한 사무공간 무상 제공과 교육 및 코칭 지원, 전문컨설팅 지원, 홍보 및 판로 개척 지원은 입주기업 들에게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영향을 미치지 않는 요인으로 나타났다. 이를 통해 볼 때 창업보육센터 지원서비스들에 있어서 입주기업들에게 창업성공 만족도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방법을 국내외에서 차별적으로 실적을 달성하고 있는 창업보육센터들을 벤치마킹하여 새롭게 지원서비스 방법을 모색하여야 하겠다.

핵심주제어: 창업보육, 창업보육 지원 서비스, 창업기업 성과, 창업기업 협업 지원

I. 서론

1.1 연구배경

최근 전 세계적인 경기침체로 인해 주요 국가들은 금융위기 이후의 생존전략으로 창업 및 기업가정신을 강조하고 있다.

정부는 특히 청년창업 활성화의 일환으로 대학생 창업지원을 확대하기 위해 막대한 예산을 배정하여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일례로 교육부, 미래창조과학부, 중소기업청은 창업교육 생태계 조성을 위해 '대학 창업교육 5개년 계획'을 발표해 창업휴학제, 창업대체학점 인정제, 창업학점 교류제 등 청년창업 지원을 확대 실시하고 있다.

아울러, 중소기업청의 '2015년도 창업지원 사업계획'에 따르면 창업아카데미, 창업선도대학, 청년창업사관학교, 창업보육센터 등 21개 창업지원사업에 총 1조 5,393억 원의 예산을 투입했다. 이는 2014년도 1조 5,222억원보다 7.7% 늘어난 수치이다.

이러한 정부의 다양한 정책으로 청년창업에 대한 열기와 청

년창업기업 수도 증가하고 있지만, 실제 생존율은 30%도 되지 않는다. 2015년 12월 통계청에서 발표한 '기업생명 행정통계'에 따르면 30대 미만 대표자 기업의 신생률은 2014년 기준 42.5%, 30대 대표자 기업 26.6%로 전체 연령대에서 1, 2위를 차지했다. 하지만 신생률 만큼 소멸률 또한 높아, 2013년 기준으로 30대 미만이 23.8%, 30대가 17.4%로 1, 2위를 차지했는데 이는 전체 기업의 평균 소멸률 12.4%보다 높은 수치다. 생존율도 다른 연령대에 비해 떨어진다. 2013년 30세 미만 청년이 대표자인 기업의 경우 창업 이후 5년 생존율은 16.6%로 10곳 가운데 2곳도 채 생존하지 못하는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창업지원정책의 수혜를 받은 후 일정기간 이상 경과한 창업가를 대상으로 창업지원정책이 창업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자 한다. 특히, 수혜를 받은 후 2년 이상 지난 시점에서 청년창업지원정책의 효과성을 검증하여 단기간의 효과에 그치는 청년창업지원정책에 대한 현실적 대안을 찾고자 한다.

본 연구는 창업지원정책의 수혜 받은 당시가 아닌 졸업 후 2년 이상 지난 시점에서 창업지원제도가 창업성과에 미치는

* 주저자, 국민대학교 부교수, yun@hoseo.edu

** 교신저자, 서울산업진흥원 책임, kimjh@sba.seoul.kr

· 투고일: 2016-09-21 · 수정일: 2016-10-21 · 게재확정일: 2016-10-28

영향을 분석하는 실증적 연구로서, 원활한 분석을 위해 서울시가 지원하고 있는 청년창업1000프로젝트의 졸업 후 2년 이상 지난 시점에서 창업가의 창업성과 (창업성공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자 한다.

창업성공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지원서비스로서는 서울시 청년창업센터의 창업공간 무상제공, 창업활동지원금 월별지급, 청년창업가 모니터링 지원 (창업교육 및 창업코칭, 창업멘토링), 전문분야 컨설팅 지원, 홍보 및 판로개척 지원들을 선정하여 창업보육센터 졸업 후 2년이 지난 시점에서 체감하는 창업가의 창업성과에 영향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는 지원서비스가 무엇인지를 분석하는데 연구의 초점을 두고 있다.

본 연구의 차별성은 현재 입주하고 있는 입주기업 대표자가 아닌 창업보육센터 졸업 후 기업들을 대상으로 평가에 대한 심리적 자유로움을 갖는 졸업 기업들을 조사 대상으로 두어 성과에 대한 객관화를 추구하였다는 것이다. 또한 전국 267개 중소기업청 지정 창업보육센터에서 지원하지 않고 있는 창업 활동비 지원이 졸업 후 창업성공 만족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 지를 분석함으로써 창업보육센터 초기 입주기업들을 보육함에 있어서 새로운 접근 방법을 제시하는 의미 있는 분석이 될 것으로 판단된다.

II. 이론적 배경

2.1 창업보육센터

창업보육센터는 배태(胚胎), 즉 ‘부화하다’라는 의미를 가진 ‘Incubate’ 조직으로서 새로운 사업의 성공적인 개발을 위해 적절하고 통제된 조건인 각종 지원 서비스를 보유한 시설이라 정의된다(Smilor, 1987).

창업은 많은 진입장벽으로 인해 시장기능 속에서 기대만큼 충분히 활성화되지 않는 것이 일반적이며, 따라서 국가는 다양한 유인을 제공하는 등 창업을 촉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러한 유인 중의 하나로 전통적으로 그 효과성을 입증하고 있는 것이 창업보육 (Business Incubation) 시스템이다(김민수 외, 2010).

세계 최초의 창업보육센터는 1959년 미국 뉴욕(New York)주에 있는 바타비아 (Batavia) 지역의 바타비아 기술센터 (Batavia Industrial Center)이다. 당시에는 빈 건물 임대료를 주된 목적으로 하였다. 1964년 당초 리서치 파크 (Research Park)로 계획되어 필라델피아 (Philadelphia) 지역에 설립된 유니버시티 사이언스 센터 (University Science Center)에 1970년대 중반부터 성장가능성이 높은 소기업들이 강력히 입주를 희망함에 따라 창업기업들에게 공간의 제공과 더불어 보육 서비스를 제공하게 되면서 본격적인 창업보육사업이 시행되었다. 1970년대 중반부터 1980년대 후반까지 미국과학재단 (NSF, National Science Foundation)이 미국 주요 연구 중심 대학의

창업보육센터와 기술혁신센터에 자금을 지원하였고, 이는 뉴욕 주의 렌셀러 폴리테크닉 대학교 (Rensselaer Polytechnic Institute)와 애틀란타 (Atlanta)의 조지아공과대학 (Georgia Institute of Technology)에 의해 승계되어 오늘날까지 운영되고 있다. 1980년대에 창업보육의 개념이 대학이나 공공 연구기관과 결합되면서 더욱 강화되었다. 산학공동연구와 기술 이전의 필요성이 강조되면서 생명공학, 정보기술, 환경기술 등과 같은 분야를 중심으로 특정 산업 및 기술의 집적을 위한 수단으로 대규모 리서치 파크나 사이언스 파크 내에 창업보육센터가 설립되어 활용되기 시작하였다. 1984년 미국 중소기업청이 일련의 회의와 출판 활동을 통해 창업보육의 개념을 확산시키기 시작하였는데, 1985년 미국창업보육협회 (NBIA, National Business Incubation Association) 창설로 급속한 발전의 계기가 되었다. 2005년 이후 미국에서 소개된 기술창업 지원의 새로운 형태로 스타트업 액셀러레이터 프로그램 (Startup Accelerators Programs)이 급속하게 성장하였다. 이는 이미 성공한 기술창업자 (엔젤 투자자 포함)들이 3개월에서 6개월이라는 짧은 기간에 적은 규모의 사업자금 지원, 전문가 집단의 멘토링 지원, 교육 및 정보 제공 등을 지원하는 제도이다. IT를 기반으로 하는 인터넷과 모바일 분야의 창업에 많은 기여를 하고 있다(한국보육협회, 2013).

독일은 경제력 집중의 방지와 시장에서의 공정한 경쟁을 보장하기 위한 측면이 강한 중소기업정책에 근거하여 창업보육사업의 일환으로 미국과 유럽 국가들의 도움을 받아 1983년 베를린에 기술창업보육센터 (Business and Innovation Center)를 설립하였다. 1998년 정식 출범한 독일혁신기술창업센터협의회 (ADT)¹⁾는 창업과 혁신을 지원하기 위한 네트워크 구축에 핵심적인 역할을 하였으며 이는 독일 기술창업보육센터가 성장하는 데 필요한 기반을 구축하였다. 일본의 창업보육센터는 1982년 고베(神戸) 시의 시스템하우스센터와 1983년 교토(京都) 시의 마이콤 테크노하우스 등이 중소기업 집산화 및 협동 조합화하는 형태로 입주기업 간의 교류와 협력을 촉진시키기 위해 시작되었다. 본격적인 입주기업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창업보육센터는 1986년 소프트노믹스 센터 (Softnomics Center)에서 그 효시를 찾을 수 있다. 또한 가나가와(神奈川) 사이언스 파크는 대규모 창업보육센터의 실험장으로서 선구자적인 역할을 하였다. 1989년 교토에서는 민간 부분에서 건설한 교토 리서치 파크가 완성되어 창업보육센터 사업을 수행하게 되었다. 1999년에는 「신사업창출촉진법」이 제정되고, 1999년 6월에 일본창업보육협회 (JANBO, Japan Association of New Business Incubation Organization)가 설립되어 창업보육사업의 활성화가 더욱 촉진되었으나, 2008년 6월 JBI (Japan Business Incubation Association)가 창설되어, 그동안 일본 창업보육사업을 대표하였던 JANBO를 대신하여 일본 창업보육사업의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KOBIA, 2013).

1) 독일명으로는 Bundesverband der deutschen Innovations-, Technologie- und Gründerzentren sowie Wissenschafts-und Technologieparks

국내의 창업보육사업은 1990년 12월 제10회 창업지원심의회에서 처음으로 「창업기업보육센터 설립·운영지원 계획」이 의결되고, 1991년 11월 「창업기업보육센터의 설립 및 업무운용준칙」의 고시로 창업보육사업의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다. 국내 창업보육센터의 개념이 처음 도입된 것은 신기술창업지원사업 (TBI, Technology Business Incubator)의 전신인 기술창업보육사업을 1991년 (구)생산기술연구원이 산업자원부(현, 산업통상자원부)의 지원을 받아 시행한 것을 시초로 본다. 이는 역외 지원 방식 (Out-of-Wall type)의 창업보육사업이며, 기술개발 지원의 성격이 강하였다. 입주 방식 (Tenant Type)의 창업보육사업은 1993년 3월 설립된 (주)중부산업컨설팅의 영동창업보육센터가 우리나라에서 처음인 동시에 최초의 민간 창업보육센터로 운영을 시작하였다. 하지만 창업보육사업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시점은 중소기업청 지정 안산창업보육센터(사업자 중소기업진흥공단)가 운영된 1994년 1월로 볼 수 있다. 1996년에는 지방자치단체 중 서울특별시와 충청남도도가 자체적으로 창업보육사업을 시작하였다. 국내에서 창업보육사업이 본격적으로 확산되기 시작한 것은 1996년 중소기업청 개청과 함께 1997년 외환위기를 겪은 이후부터라고 할 수 있다. 1997년 8월에는 벤처기업 지원에 보다 체계적인 구조를 확보하고 벤처기업 활성화를 위한 법률적 기반의 마련을 위해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제정되었고, 벤처기업에 대한 정부지원 및 벤처생태계 구축을 위한 인프라 기반을 마련하였다(한국보육협회, 2013).

창업보육센터의 유형은 설립 및 운영 주체의 차이에 따라 <표 1>과 같이 분류할 수 있다.

<표 1> 창업보육센터의 유형

구분	유형	운영전략/목표
설립 및 운영주체	공공기관 주도형	- 지역개발 및 고용증대 목적으로 작업실 및 설비 등을 지원 - 지방소재 행정기관 및 관련 단체 협력 공동 운영
	대학연계형	- 대학 및 주변 연구기관이 공동출자 운영 - 대학과 기업이 공동 연구 개발 - 대학과 기업간 기술 교류 및 정보 교환 - 연구개발물의 기업 이전
	민간기업 주도형	- 민간기업이 비즈스스를 위해 투자 운영 - 공공기관보다 보육료가 고가 - 민간 경영기법 접목으로 높은 사업 성공률 제고
	정부주도형	- 창업보육 지원전담기관 설립 및 운영으로 중소기업 육성의 형태 - 사업 실시기관에 세제혜택 및 투자손실 보전 등 지원 - 전담기관 채무보증으로 금융기관의 융자 등 자금 지원

자료: 김경환(2006)

창업보육센터 관련연구는 1980년 중반이후 미국 등을 중심으로 센터 운영의 필요성과 설립을 위한 자원 등 개념적 연구와 효과, 평가 등 실전적 연구로 이루어져 왔다. 국내에서는 1990년대 중반부터 창업보육센터 입주기업의 성공요인 등 운영 효율화와 이를 위한 정책에 초점을 맞추었으며, 최근에는 창업보육센터 지원서비스 등의 입주기업 성과 영향 요인에 대해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다(황보운 외, 2013).

본 연구에서는 2009년부터 서울특별시가 20~30대 예비창업자의 성공적 창업을 유도해 청년실업을 해소하고 창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층 대상 창업 공간, 시설·장비, 자금

등을 지원하여 서울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운영하고 있는 “청년창업1000프로젝트”의 창업기업들을 대상으로 창업보육센터 지원서비스가 창업기업가의 만족도에 어떠한 영향을 주는 지에 대해 규명해 본다.

2.2 창업보육센터 지원서비스

창업보육센터의 주요서비스는 입주기업들에게 필요한 물리적 설비 지원에서부터 다양한 경영 지원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한 영역으로 구성되고 있다(황보운 외, 2013).

Smilor(1987)는 창업보육센터 지원서비스로 ① 경영의 전문성, ② 자금조달지원, ③ 사무·행정·기자재 지원, ④ 지역사회 지원, ⑤ 네트워크 구축, ⑥ 교육, ⑦보육센터의 명성 확보, ⑧ 입주기업 선정과 퇴출의 경험, ⑨ 대학과의 연계 ⑩ 보육에 대한 상세한 프로그램 필요를 제시하였다.

Carsrud, et. al.(2000)는 지식네트워크를 기반으로 한 국제적 협력의 창업보육센터에 대한 연구에서 12가지의 성공요인과 7가지의 한계점 그리고 기술이전의 모델을 정립하면서 창업보육센터의 외부 네트워크의 중요성을 설명하고 있다.

Lichtenstein, et. al.(2004)은 성공적인 창업보육센터 요인으로 창업보육센터 매니저의 역할을 강조하고, 성공적인 지원 서비스들의 구체적인 내용을 제시하면서 입주기업이 필요로 하는 자원과 제약조건을 토대로 입주기업의 요구사항에 적합한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조준희·김우성(2009)은 입주기업의 매출액 증가에 미치는 요인으로 입주기업 간 네트워크, 창업가의 자질과 경험 등이 중요한 변수임을 규명하였다.

Strodtbeck & Terry(2010)는 미국 NBIA의 예비회담 (Preconference)에서 창업보육센터의 발전 단계를 총 5세대로 구분하고 각 세대별 주요 내용과 기능을 제시하였다. 1세대 창업보육센터 기능은 창업 공간 제공, 공유 서비스, 수동적 사업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수준을 말한다. 2세대 창업보육센터 기능은 창업 공간 제공, 공유 서비스, 주도적 사업 지원으로 변경되면서 창업 훈련, 사업 지원 네트워크, 마케팅 지원, 판매영업 지원, 멘토 기능 등이 새롭게 추가되었다. 또한 창업 코칭 분야를 추가하여 목표 고객 접촉과 벤치마크 대상기업 협력 프로그램의 기능이 있다. 3세대 창업보육센터 기능은 2세대 기능에 추가로 창업보육센터 입주회사 고객들의 투자 서비스를 제공한다. 예를 들어 투자교육, 평가, 펀딩 준비, 변호, 조직내 서비스 등을 제공한다. 4세대 창업보육센터 기능은 3세대 기능에서 장소 제공은 받지 않으나 창업보육센터의 지원과 프로그램에 참여 가능한 제휴기업 프로그램 기능과 사전 보육 기능, 즉 기업 계획과 관리에 중심을 둔 기업가정신 훈련 프로그램 기능이 추가되었다.

최근 제시되고 있는 5세대 창업보육센터는 4세대의 기본적인 서비스에 추가적으로 글로벌 진출 지원, 특화된 기술창업 교육, 가상화 서비스, 특정 산업 특화 등의 전문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의미한다. 구체적인 지원 서비스를 설명하

면 <표 2>과 같다(한국보육협회, 2013).

<표 2> 5세대 창업보육 기능의 주요 특성

5세대 주요 특성	주요 내용
글로벌화 (globalization)	- 글로벌 시장 진출 지원 서비스 및 인프라 구축 - 전반적으로 4세대 창업보육에 글로벌 개념 추가
특화된 기술창업 교육 (intensive technopreneur education)	- 단순 기업가정신 교육 및 창업교육이 아니라 기술창업자의 특성을 감안하여 기술창업에 특화된 기술창업교육 프로그램 제공
가상화 서비스 (virtualization)	- 기존의 시설, 공간 등 물리적 지원 서비스 외에 온라인 지원서비스 시스템을 추가한 개념 - 주로 Virtual 컨설팅, Virtual 네트워크 지원, Virtual 투자지원 시스템 등 온라인 상에서 체계적인 창업 지원 서비스 제공
특정 산업 특화 (specialization)	- 일반적인 기술창업보다는 IT, 반도체, 바이오 등 특정 산업에 특화하여 지원 서비스 제공 개념 - 또한 창업 지원 서비스의 특정 기능(교육, 컨설팅, 자금 지원 등)에 특화된 서비스 제공 개념 포함

윤종록·김호정(2011)은 창업보육센터의 지원서비스를 시설(공간) 및 장비 서비스, 경영지원 서비스, 기술지원 서비스, 자금지원 서비스, 사무 및 행정 서비스 등으로 구분하였다.

또한 창업보육센터의 지원서비스에 따라 입주기업의 경영성과에 정(+)의 영향을 미치게 되므로 기술, 행정, 경영, 자금 지원 서비스 등의 서비스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그 외 운영시스템의 특성 즉 운영목표의 명확한 제시, 명확한 운영정책, 기관의 관심도, 재정자원, 네트워크는 입주기업 경영성과에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규명하였다. 또한 창업보육 매니저의 특성 즉 보유역량, 업무경험, 기업가정신, 고용형태가 경영성과에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주장하였다(윤종록·김호정, 2011).

황보윤·외(2013)는 청년 창업보육센터의 창업지원시스템이 창업성과에 미치는 영향 연구에서 창업활동 지원금과 입주사간 협업지원이 창업 성과에 유의적인 영향이 있다고 규명하였고, 창업보육센터 입주 전 지식재산권 보유수가 창업성과에 유의적 영향을 미치므로 입주기업 선발시 지식재산권 보유자를 우선 선발할 것을 주장하였다.

최강득·김영문(2015)은 입주기업에게 제공하는 서비스 중 경영 지원 서비스와 기술 지원 서비스는 기업 경영성과에 부분 매개효과를 가져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물리적 지원 서비스 요인은 입주기업의 경영성과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규명하고, 창업 초기 기업에 있어 우수한 기술 확보와 체계적인 경영시스템 구축이 창업 성공의 요소임을 강조하였다.

최강득·외(2015)는 입주기업 서비스 만족도와 경영성과에 창업보육센터 매니저의 고용안정성의 높고 낮음에 따라 유의적으로 차이가 있으며, 매니저의 고용안정성을 강조하였다.

이상석·최종호(2001)와 양현봉 외(2002), 최종열·정해주(2006)의 연구를 종합하여 창업보육센터 입주기업 성공 영향 지원 서비스는 <표 3>과 같이 물리적 설비 지원 서비스, 마케팅 서비스, 인적자원·법률지원 서비스, 자금지원 서비스, 기술 및 생산관리 서비스, 네트워크 서비스로 정리되어진다.

<표 3> 창업보육센터 입주기업 성공 영향 지원 서비스

분야	창업보육센터 입주기업 지원 서비스
물리적 설비 지원	창업 공간, 기술 개발 필요한 시설 및 장비, 부대시설 및 통신시설, 침단·전문 장비
마케팅	국내시장 조사, 광고·홍보 서비스, 판매업체 연계 지원, 수출입 절차 대행, 해외시장 조사 지원
인적자원·법률지원	인적자원의 교류 및 활용 제공, 인력 채용 지원, 교육 및 훈련(세미나) 지원, 사업 운영관련 법률지원, 각종 계약체결, 특허 및 지적 재산권 보호 및 관리 지원, 각종 규제 관련 정보의 제공
자금 지원	재무, 회계, 조세 관련 전문 서비스, 투자유치 설명회 개최, 각종 정책 자금 알선 지원
기술 및 생산관리	기술이전, 기술평가 및 기술의 사업화 관련 서비스, 제품 및 생산공정 개발 지원, 각종 시험 및 검사의 통과 지원 서비스, 국내외 인증 획득 관련 서비스
네트워킹	정부기관, 창업지원관련 유관기관, 각종 연구소 및 금융기관 입주 업체간, 타보육센터, 인증, 졸업업체 등과의 연계 지원, 지방자치단체 및 벤처캐피탈과의 연계 지원

본 연구의 조사대상인 서울특별시 2009년 청년창업가 지원의 인프라 역할을 하는 청년창업센터를 개소하여 창업 공간, 시설·장비, 자금 등을 집중적으로 지원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구체적인 추진방향으로는 <표 4>와 같다.

<표 4> 청년창업1000프로젝트 지원방향과 지원대상

구분	내용
지원방향	1) 경제난에 더 큰 어려움을 겪고 예비 청년창업자 수요가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에 개소 2) 창업 공간 제공 등 창업 전 단계에 걸친 획기적인 행정 지원 3) 창업성과 평가평가로 지속 지원 여부 결정 4) 창업제품 전시회 및 페스티벌 개최로 투자유치 및 성공사례 확산
지원대상	1) 우수한 창업아이템 및 강한 창업의지 보유 2) 1인 창조기업을 희망하는 자로 창의적 아이디어·기술·전문지식 보유 3) 창업 준비 중이거나 창업 1년 이내

지원대상은 기본적으로 서울시에 거주하는 만 20세-39세의 예비창업자로서 <표 4>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모집 및 선발하여 지원하며 연간 1,000팀을 지원한다.

지원분야 및 업종은 아래 표와 같다.

<표 5> 청년창업1000프로젝트 지원분야 및 업종

분야	업종
지식창업	지식콘텐츠, 마케팅홍보, 전문컨설팅, 번역·웹디자인 프리랜서, 통신업, 오락·문화·운동관련 서비스업 등
기술창업	기계·재료, 전기·전자, 정보·통신, 항공·섬유, 생명·식품, 환경·에너지, 공예·디자인 등
일반창업	통신판매업, 인터넷 쇼핑물, 유통업, 아이디어 창업 등

“청년창업1000프로젝트”의 창업 공간, 재정지원, 창업 모니터링 지원 관련 지원 내용은 아래 표와 같다.

<표 6> 청년창업1000프로젝트 지원내용

구분	내용
창업공간	· 창업공간(1인 업체당 7~10㎡) 제공 · 임대료 및 관리비 무상 제공 · 사무용 집기(책상, 의자, 캐비닛 1식) 제공 · 세미나실, 공용장비실, 제품보관실 제공
재정지원	· 창업활동 지원금 지원 : 월 50~100만원, 1년간 · 창업관련 용자알선 및 창업자금 대출보증
창업 모니터링 지원	· 창업멘토링 : 창업초기 기업 창업지원 니즈 파악 · 창업교육 : 강의형, 맞춤형 교육, 집단토론형 사례분석 · 창업코칭 : 창업아이템별 그룹화 통한 창업역량의 단계적 강화 · 전문분야 컨설팅 : 법무, 세무, 특허, 일반경영 등
마케팅 역량 강화	· 온·오프라인 마케팅 지원 · G-Mark 등 국내 인지도 높은 쇼핑물과 판로개척 · 알리바바닷컴 등 해외 유명 쇼핑물 연계, 판로개척 추진 · 해외시장별 동향 정보 제공, 맞춤형 시장진입 전략 컨설팅 · 해외 바이어 상담회 지원 · 중국, 동남아 등 경제발전 속도가 높은 신흥시장 대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운영방법 : 현지시장 바이어와 입주업체간 수주상담회 개최 - 국내외 전시회 참가 지원 - 국내외 유명 전시회 참가지원 통한 제품홍보 및 판로개척 - 서울디자인올림픽, 한상대회, Canton Fair 등 - 유관 기관과 연계한 전문전시 추진 - '청년창업1000프로젝트'관' 구성 혹은 개별 참가 지원 - 입주기업 협력사업 - 입주기업 간 협력 프로그램 운영 통한 창업실행력 강화
홍보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입주기업 성공사례 발표 : 우수기업 성공사례 발표회, 투자유치 설명회, 상담회 개최 등 - 애드토리얼 홍보 지원 : 홍보기사(Adtorial)식 마케팅지원으로 판로지원 강화 - 업종별 홍보물 제작지원 : 카탈로그, 비디오/멀티미디어, 홈페이지 등

2.3 입주기업성과

창업기업의 성과는 일반 기업의 경영 성과와 다르지 않다. 기업의 성과변수는 산업조직론, 조직론, 전략경영론 등의 분야에 따라 차이가 있어서 산업조직론에서는 수익성 지표인 ROI, ROE, ROA 등을 성과변수로 채택하고 있다. 조직론에서는 직무성과, 직무만족도, 조직유효성 등을 주요 성과변수로 사용하고 있다. 하지만 단일지표에 의한 성과변수 측정의 오류를 피하기 위해 변수를 복합적으로 선정하여 사용할 것을 주장하기도 한다(윤종록·김호정, 2011).

창업보육센터 입주기업의 경영 성과를 측정하는 방법으로 사용되는 재무적 성과와 비재무적 성과 각각 한계점이 존재한다. 예를 들면, Cooper(1985)는 재무적 성과 척도의 한계점을 극복하는 방법으로 창업보육센터의 영향력 차원, 프로그램의 성공률, 상대적 성과 등을 사용하였으나 일반화된 척도로 활용하는데는 문제가 있는 것으로 지적된다. 또한 Chandler & Hanks(1994)는 경쟁자에 의한 상대적 평가를 사용하고, Mian(1997)은 조직의 유효성에 기반을 둔 척도를 적용하였으나, 이는 창업보육센터의 주관적 견해에 의해 영향을 받는 한계로 성과 측정의 객관성을 보장하기 어렵다는 주장도 있다(김장권, 2011). 윤종록·김호정(2011)은 창업보육센터 입주기업의 경영성과 변수로 입주기업 매출액 증가, 입주기업 고용 증가, 지식재산권 보유 증가, 입주기업 만족도, 기술개발 진척도를 제시하였다.

본 논문에서는 연구대상이 아직 객관적 성과지표가 미약한 청년창업기업들이므로, 경영 성과를 이들 중 주관적 성과지표를 사용하였다. 주관적 성과지표는 청년창업가가 주관적으로 평가하는 기업의 성공정도를 측정하는데 사용되어지는 지표를 말한다. 정양현 외(2003)연구에서 창업보육센터 지원 서비스의 성과에 대해 해당 보육 서비스의 수요자인 입주기업이 직접적으로 평가하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주장하였다. 이달환(2000)과 양현봉(2000) 연구에서도 입주기업 성과 지표로 창업보육센터가 제공하는 지원 서비스에 대한 만족도를 측정하였다.

III. 실증 연구

3.1 연구의 개념 및 가설의 설정

본 연구의 목적은 청년창업보육센터를 졸업한 창업가들을 대상으로 졸업 후 창업성과에 가장 도움이 되었다고 생각하

는 지원제도가 무엇인지를 알아보는 것이다.

이를 위해 창업보육센터 입주기업 성과에 미치는 영향 요인으로 물리적 시설 및 장비 지원 그리고 인력지원의 중요성을 강조한 Gibb(1990) 연구와 Klosfsten & Mikaelsson(1996) 연구, 그리고 윤종록·김호정(2011), 정양현 외,(2003), 이달환(2000)과 양현봉(2000) 연구를 기반으로 연구 변수를 선정하였다.

지원서비스로는 사무공간 무상 제공, 창업활동 지원금, 교육 및 코칭 지원, 전문 컨설팅 지원, 홍보 및 판로개척 지원, 입주시간 협업 지원으로 선정하였으며, 입주기업 성과는 입주기업이 대부분 창업초기 이므로 재무적 지표 수집이 어려워 비재무적 지표인 창업보육센터 졸업 후 창업 기업에 대한 창업성공 만족도를 선정하였다. 이를 기초로 하여 다음과 같이 가설을 설정하였다

가설1: 사무공간 제공 만족도는 창업성공 만족도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2: 창업활동 지원금 만족도는 창업성공 만족도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3: 교육 및 코칭 지원 만족도는 창업성공 만족도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4: 전문 컨설팅 만족도는 창업성공 만족도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5: 홍보 및 판로개척 지원 만족도는 창업성공 만족도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6: 입주시간 협업 지원 만족도는 창업성공 만족도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3.2 변수의 조작적 정의와 측정

3.2.1. 변수의 조작적 정의

본 연구의 가설을 검증하기 위하여 지원 서비스는 김장권(2011) 연구와 황보운 외(2013) 연구를 기초하여 다음과 같이 변수에 대한 조작적 정의를 내렸다.

첫째 사무공간 제공은 업무수행 공간 (서울시의 경우 임대료 및 관리비 무상 제공), 기술개발을 위한 시설, 회의실 등 부대시설, 통신 및 첨단 전문 장비 지원으로 정의한다.

둘째, 창업활동 지원금은 창업시 필요 경비를 위해 월 일정 금액 (서울시의 경우 50만원~100만원, 1년간)을 지원하는 것으로 정의한다. 셋째, 교육 및 코칭 지원은 창업 강좌 제공, 맞춤형 교육 지원, 창업아이템별 코칭 지원으로 정의한다.

넷째, 전문 컨설팅 지원은 법무, 세무, 특허, 일반 경영 분야 전문가로 하여금 창업기업에 컨설팅 하도록 지원하는 것으로 정의한다. 다섯째, 홍보 및 판로 지원은 홍보물 제작 지원, 온·오프라인 마케팅 지원, 해외 바이어 상담회 지원, 국내외 전시회 참가 지원 등으로 정의한다.

여섯째, 입주시간 협업 지원은 입주 기업간 협력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것으로 정의한다. 일곱째, 창업성공 만족도는 창업기업 대표자의 사업 운영에 대한 만족 정도로 정의한다.

위 변수들에 대한 측정은 Likert 10점 척도로 측정하였다.

3.2.2. 설문조사 대상과 설문지 구성

본 연구는 창업보육센터를 졸업한 창업가들을 대상으로 졸업 후 창업성과에 가장 도움이 되었다고 생각하는 창업지원 서비스가 무엇인지를 연구하여 창업보육 지원정책의 효과성을 제고하려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서울시 청년창업센터에 입주할 당시, 창업공간 무상제공, 창업활동지원금 월별지급, 청년창업가 모니터링 지원(창업교육 및 창업코칭, 창업멘토링), 전문분야 컨설팅 지원, 홍보 및 판로 개척 지원 등을 받은 청년창업가가 청년창업센터 졸업 후 2년이 지난 졸업생들을 설문조사 대상으로 선정하였다.

설문지의 방식은 찬반형, 선다형, 혼합형 질문법을 골고루 사용하였으며, 설문지는 기업일반현황, 경영성과, 지원성과 부분으로 구성하였다. 기업일반현황에 관한 7문항, 경영성과에 관한 7문항, 지원성과에 관한 10문항으로 이루어졌다.

3.3 자료수집 및 분석

3.3.1. 자료수집 기간과 방법

본 조사에서는 신뢰성 높은 자료를 수집하기 위하여 연구대상의 선정 및 조사절차를 신중하게 고려하였다. 조사목적과 연구범위를 고려하여 설문조사 기간은 2014년 11월 1일부터 11월 25일까지 소요되었고, 자료는 전체 데이터를 전화설문의 방법으로 수집하였으며, 전화로 신분확인을 위해 고유번호 문의 및 신분확인을 실시하여 중복응답을 방지하였다.

설문지는 청년창업센터 기졸업자인 1기 849명, 2기 895명을 합친 총 1,714명에게 응답요청을 하였고, 1기 중 360명, 2기 중 453명을 합친 총 813명에게 전화설문을 완료하였다.

응답한 813명의 응답결과를 자료 분석에 사용하였고, 수집된 자료의 통계처리는 SPSS Win Ver. 20.0을 활용하였다.

3.3.2. 창업가의 창업성공 만족도의 신뢰성과 타당성분석

청년창업가의 창업성공만족도의 신뢰도 분석을 위한 크론바하 알파(Chronbach's α) 테스트 결과 0.852로 신뢰할 만한 수준으로 판단된다.

창업성공만족도 측정을 위한 4개 설문항목에 대한 타당성 분석을 위해 탐색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eigen value 1 이상으로 측정된 결과, 1개의 요인으로 추출됨에 따라 4개 설문항목에 대한 타당성은 검증되었다.

이 1개 요인을 창업성공만족도라 명명하고 각 문항의 성분행렬과 설명된 총분산은 <표 7>과 같다.

<표 7> 성분행렬과 설명된 총분산

성분행렬 α	
	성분
	1
• 귀하의 사업을 성공적이라고 평가하십니까?	.822
• 귀하의 사업운영이 직장생활을 하는 것보다 더 많은 기회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843
• 귀하의 사업가로서 자부심을 가지고 있습니까?	.821
• 귀하의 회사는 잘 운영되고 있습니까?	.842

설명된 총분산						
성분	초기교육값			추출제곱합적재값		
	합계	%분산	%누적	합계	%분산	%누적
1	2.771	69.282	69.282	2.771	69.282	69.282
2	.531	13.284	82.566			
3	.391	9.764	92.330			
4	.307	7.670	100.000			

3.4 조사분석결과

3.4.1 기술통계량

조사대상 창업기업들의 지원서비스에 대한 기술통계량은 <표 8>과 같이 나타나며, 지원서비스 만족도 평균이 가장 높은 서비스는 창업활동지원금(7.77)이며, 사무공간 무상제공(7.58), 교육 및 코칭(6.33), 전문컨설팅(5.59), 홍보 및 판로 개척 지원(5.04), 입주사간 협업(4.95) 순으로 나타났다.

<표 8> 지원 서비스 기술 통계량

구분	N	평균	표준편차
사무공간무상제공 만족도	813	7.58	2.151
창업활동지원금 만족도	813	7.77	1.954
교육및코칭 만족도	813	6.33	2.247
전문컨설팅 만족도	813	5.59	2.364
홍보판로개척지원 만족도	813	5.04	2.273
입주사간협업 만족도	813	4.95	2.248

3.4.2 빈도분석

조사대상 창업기업들의 졸업 후 신규 창업 비율은 전체의 57.6%로 나타났고, 반면에 서울시 창업보육지원센터를 졸업한 후에도 창업하지 않은 비율은 26.3%로 나타났다.

<표 9> 청년창업센터 졸업기업의 창업유무

구분	빈도	퍼센트
미창업	214	26.3
창업	468	57.6
기창업	131	16.1
합계	322	100.0

청년창업센터 졸업기업이 설문 응답 당시에 본인들이 느끼는 청년창업센터에 입주함으로써 본인의 창업시기가 단축된 정도는 6개월 단축이 28.2%, 6개월~1년 단축이 21.9%, 1년 이상 단축이 18.7%이며, 3개월 단축이 16.1%로 나타났다.

<표 10> 창업시기 단축정도

구분	빈도	퍼센트
3개월	131	16.1
6개월	229	28.2
6개월~1년	178	21.9
1년이상	152	18.7
기타(우응답)	123	15.1
합계	813	100.0

3.4.3 상관관계 분석

6개의 창업지원 서비스와 창업성공만족도와의 상관관계 분석 결과 창업지원 서비스들이 모두다 창업성공만족도와 유의수준 1%에서 유의적인 선형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상관계수는 창업활동지원금 (0.151)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

타났고, 전문컨설팅지원 (0.146), 홍보 및 판로개척지원 (0.145), 입주사간 협업지원 (0.130), 교육 및 코칭 지원 (0.120), 사무공간무상제공 (0.086) 순으로 나타났다.

<표 11> 상관관계 분석

구분	사무공간 무상제공 만족도	창업활동 지원금만족도	교육및코칭만족도	전문컨설팅만족도	홍보판로개척지원만족도	입주사간협업만족도
사무공간 무상제공 만족도	Pearson 상관계수 1					
창업활동 지원금만족도	.394**	Pearson 상관계수 1				
교육및코칭만족도	.271**	.375**	Pearson 상관계수 1			
전문컨설팅만족도	.275**	.297**	.680**	Pearson 상관계수 1		
홍보판로개척지원만족도	.278**	.218**	.477**	.558**	Pearson 상관계수 1	
입주사간협업만족도	.270**	.126**	.333**	.327**	.402**	Pearson 상관계수 1
창업성공만족도	.086**	.151**	.120**	.146**	.145**	.130**

** 상관계수는 0.01 수준(양쪽)에서 유의합니다.
* 상관계수는 0.05 수준(양쪽)에서 유의합니다.

3.4.4 가설 검증과 시사점

창업보육센터 입주기업들에 제공하는 지원서비스들을 독립변수로 창업 성공 만족도를 종속변수로 하는 회귀분석 결과, 독립변수들이 모두 포함된 회귀 모형은 <표 14>와 같이 분산분석에 의해 유의적인 것으로(P value = 0.000) 나타났다. 또한 <표 13>에서 나타나는 바와 같이 모형의 설명력을 나타내는 수정된 R 제곱 값은 3.7%로 그 설명력이 높지 않게 나타났다.

<표 12>모형 요약b

모형	R	R 제곱	수정된 R 제곱	추정 값의 표준오차	Durbin-Watson
1	.209a	.044	.037	0.9655	1.844

<표 13>분산분석a

모형	회귀 모형	제곱합	자유도	평균 제곱	F	유의확률
1	잔차	662.405	806	.822		
	합계	609.731	812		6.150	.000

<표 14> 계수 및 공선성 통계량

모형	비표준화 계수		표준화 계수 베타	t	유의확률	공선성 통계량		
	B	표준오차				공차	VIF	
1	(상수)	-.780	.155	-5.045	.000			
	사무공간무상제공만족도	-.005	.017	-.323	.747	.778	1.285	
	창업활동지원금만족도	.058	.019	.122	3.088	.002	.763	1.311
	교육및코칭만족도	-.011	.020	-.026	-.532	.595	.486	2.056
	전문컨설팅만족도	.027	.020	.069	1.365	.173	.464	2.154
	홍보판로개척지원만족도	.026	.018	.065	1.485	.138	.619	1.615
	입주사간협업만족도	.032	.016	.078	2.005	.045	.788	1.269

<표 15> 회귀분석 결과를 통해 가설 검증 결과는 창업활동 지원금 지원과 입주사간 협업 지원이 창업 성공 만족도에 각각 1%, 5% 유의 수준에서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서 가설 2과 가설 6은 기각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설 검증의 시사점은 창업보육센터내 창업기업들의 창업 성공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창업 활동금 지원과 입주사간 협업 지원에 더욱 집중할 필요가 있다. 이는 2016년 현재 중소기업청 지정 267개 창업보육센터 운영자와 그 책임자들에게 유용한 시사점을 주고 있다.

또한 사무공간 무상 제공과 교육 및 코칭 지원, 전문컨설팅 지원, 홍보 및 판로 개척 지원은 입주기업 들에게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영향을 미치지 않는 요인으로 나타났다. 이를 통해 볼 때 사무공간 제공은 반드시 무상으로 할 것인가에 대해 재고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교육 및 코칭, 전문 컨설팅, 홍보 및 판로 개척 지원 방법에 대해 입주기업들에게 창업성공 만족도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방법을 새롭게 모색해 보아야 하겠다.

예를 들어 첨단기술에 기반을 둔 창업을 촉진시키는 핵심 조직으로 UCSD(University of California at San Diego)의 첨단 기술을 생명과학 및 공학 관련 기업가들과 연결시킴으로서 San Diego 지역발전을 이룩한 미국의 성공적인 지역혁신 조직으로 인정받고 있는 Connect Program 의 지원 서비스를 참고해 볼 필요가 있다.

Connect는 1980년대 초반, UCSD 가 정부 R&D 지원 프로그램에서 탈락하면서 San Diego 지역 공동체의 위기의식이 고조, 이러한 위기의식에서 새로운 활로를 찾기 위한 지역 공동의 노력과 UCSD의 첨단기술에 관심을 갖고 있었던 Bill Otterson을 주축으로 하는 기업가들과 첨단기술 기업 이전 방법을 모색하고 있던 대학 당국의 의도가 맞아 떨어지면서 1985년 대학 부속기관 (UCSD Extension)에 만들어진 기술사업화 촉진 조직이다. 첨단기술을 바탕으로 창업하고자 하는 기업가 또는 연구자들에게 자본 (Venture capital)과 공동경영자, 경영전략기획, 마케팅, 금융서비스, 법률서비스, 회계서비스 등과 같은 다양한 자원과 서비스를 연결시키는 역할을 하고 있다. 2005년 7월 기준으로, Connect는 UCSD로부터 독립하여 회원들과 기업들의 후원으로 운영하는 비영리 조직, 기관 회원수 200여개 이상, 1년에 100회 이상 교육프로그램 운영과 자금조달 능력 1조원이상의 조직으로 성장하였다(중소기업진흥공단, 2010).

CONNECT의 4대 주요 프로그램 및 구성으로 첫째 창업지원 프로그램은 다음과 같다.

- Springboard : 사업전략의 기획과 사업화 자금 조성방법 등을 지도
- EIR(Entrepreneur-In-Residence) Commercialization Assistance Program : 기업가들과 투자자들 중 22명을 선발, 구성한 자문위원단들로부터 사업화에 대한 전반적인 자문
- Frame works Workshops / Entrepreneurial Resource Guides : 창업 성공사례에 대한 경험과 노하우를 전파 둘째, 사업화 자금조성 프로그램으로 다음과 같이 지원 한다.
- Venture Roundtable / Grant Funding Sources / MIT Enterprise Forum with CONNECT : 기업가들과 Venture Capital들의 사업화 타당성 및 동향에 대한 의견 교환

셋째, 교육 및 확산 프로그램으로는 다음과 같다.

- **Frontiers in Science & Engineering** : 기업가들을 대상으로 하는 최첨단 기술 교육
- **Connect with CONNECT** : 기업가들 간에 상품화 가치가 있는 최첨단 기술에 대한 의견 교환
- **Leadership Council** : 기업 성공을 위한 기업가의 리더십을 배양

넷째 기술사업화 성공사례확산 프로그램은 다음과 같다.

- **Most Innovative New Product Awards / Hall of Fame** : 기술사업화 성공사례 격려 및 동기부여

프로그램 성과는 230여개 기업이 Springboard 과정을 졸업하였으며 이중 135개 기업은 현재(2005년 기준) 운영 중이며 1,000여개 이상의 기업이 도움을 받았으며 5,500억 원 이상의 초기투자자본 (Early/seed Stage Investment) 확보하는 성과를 올린 상태이다(Small & medium Business Corporation, 2010).

첨단기술을 바탕으로 하는 Springboard 과정을 졸업한 기업은 60%가 자립에 성공하였으며 (일반적으로 Springboard 과정 생존실패율: 33%) 졸업 후 24개월 이내에 88%가 자금 확보에 성공하였다.

Connect의 주요성공요인은 첫째, UCSD를 중심으로 세계적 수준의 연구소와 기술사업화를 희망하는 기업가와 투자자가 결집하면서 클러스터를 형성한 것이 주요 성공 요인이라 판단된다. 둘째, San Diego에서 존경받는 기업가들이 첨단기술에 대한 관심과 리더십을 발휘, UCSD와 지역 연구소의 기술 신뢰성을 높였고 CONNECT 설립 후에는 이들이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정보공유며 성공사례를 확산시키는데 앞장선 것도 성공요인이라 판단된다.

셋째, 기술 사업화를 희망하는 연구자, 기업가들이 창업할 때 필요한 투자자, 금융 및 법률 서비스 등의 인프라가 잘 구축되어 있는 점도 성공요인 중 하나라 여겨진다(중소기업진흥공단, 2010).

IV. 결론

5.1 요약 및 시사점

본 연구는 창업보육센터의 지원시스템이 입주기업 창업성공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서 서울시가 지원하고 있는 청년창업 1000프로젝트 2009년 입주자인 1기 360명과 2010년 입주자인 2기 453명 총 813명을 대상으로 조사하였다. 창업보육센터 입주기업들에게 제공하는 지원서비스들인 사무공간 무상 제공, 창업활동금 지원, 교육 및 코칭 지원, 전문 컨설팅 지원, 홍보 및 판로 개척 지원, 입주사간 협업을 독립변수로 창업 성공 만족도를 종속변수로 하여 통계분석을 실시하였다.

조사대상 창업기업들의 지원서비스 만족도 평균은 가장 높은 서비스는 창업활동지원금 (7.77)이며, 사무공간 무상제공 (7.58), 교육 및 코칭 (6.33), 전문컨설팅 (5.59), 홍보 및 판로 개척

지원 (5.04), 입주사간 협업 (4.95) 순으로 나타났다. 이를 통해 볼 때 입주사간 협업은 상대적으로 높은 만족도를 보이지 않음을 확인할 수 있다.

가설 검증 결과는 창업활동지원금 지원과 입주사간 협업 지원이 창업 성공 만족도에 각각 1%, 5% 유의 수준에서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설 검증의 시사점은 창업보육센터내 창업기업들의 창업 성공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창업 활동금 지원과 입주사간 협업 지원에 더욱 집중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이는 2016년 현재 중소기업청 지정 267개 창업보육센터 운영자와 그 책임자, 그리고 정책 담당자들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할 수 있겠다.

또한 사무공간 무상 제공과 교육 및 코칭 지원, 전문컨설팅 지원, 홍보 및 판로 개척 지원은 입주기업 들에게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영향을 미치지 않는 요인으로 나타났다. 이를 통해 볼 때 사무공간 제공은 반드시 무상으로 할 것인가에 대해 재고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교육 및 코칭, 전문 컨설팅, 홍보 및 판로 개척 지원 방법에 대해 입주기업들에게 창업성공 만족도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방법을 국내외에서 차별적으로 실적을 달성하고 있는 창업보육센터들을 벤치마킹하여 지원서비스 방법을 새롭게 접근하여야 하겠다.

5.2 연구의 한계 및 향후 연구의 방향

본 연구는 창업보육센터의 지원서비스가 입주기업 경영 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는 데 서울시 청년 창업 1000 프로젝트 사업에만 국한하여 조사를 진행했다는 점이 일반화하는데 한계점이 있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연구 모델의 수정된 R 제곱 값이 3.7%로 설명력이 낮다는 점이 있다.

셋째, 독립변수로 다루었던 지원서비스 만족도에 대한 측정 항목을 단일화한 점을 개선하여 향후 확인적 요인 분석에 의한 추가 연구가 필요하다.

끝으로 창업보육센터 입주기업의 속성상 창업 초기 기업들로서 재무적 지표를 창업기업 성과로 다루지 못하고 창업기업에 대한 창업성공만족도로 국한하여 진행하였는데, 향후에는 이러한 창업기업이 달성하는 매출액 및 고용창출현황을 추적하여 연구를 해야 할 것이다. 또한, 좀 더 다양한 창업보육센터들을 대상으로 사업의 효과성을 검증하는 것도 향후 연구방안으로 생각된다.

본 연구가 발판이 되어 창업보육센터 입주기업들의 창업성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연구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져 창업보육센터 운영 및 정책 지원 관계자들이 창업가들의 실패를 최소화 할 수 있는 방법을 개발 할 수 있도록 기대해 본다.

REFERENCE

- 김경환(2006), 산학협력과 창업보육센터, 기술정보화를 통한 경영 혁신 e-SME,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5(10), 12-18.
- 김민수·황보윤·김홍(2010), 창업보육기업의 창업자 특성이 기업성

- 과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벤처창업연구*, 5(2), 33-57.
- 김장권(2011), 창업보육센터 입주기업의 성과에 미치는 지원 요인에 관한 연구 -BI입주기업 성장단계에 따른 효과적 운영 전략, *대한경영학회 학술대회 발표논문집*, 171-190
- 양현봉(2000), *창업보육센터 실태분석 및 정책효율화 방안* 산업연구원
- 양현봉·송하을·김홍석(2002), 우리나라 창업보육센터 평가에 관한 연구, *중소기업연구*, 24(1), 25-52.
- 윤종록·김호정(2011), 창업보육센터 입주기업의 경영성과 요인에 관한 탐색적 연구, *경영컨설팅리뷰* 2(1), 15-42.
- 이달환(2000), *우리나라 창업보육사업의 운영특성과 성공요인*, STEPI 연구보고서
- 이상석·최종호(2001), 창업보육센터 성공요인에 관한 연구, *중소기업연구*, 23(4), 155-177.
- 조준희·김우성(2009), 창업보육센터 입주기업의 성과 요인에 관한 연구, *산업경제연구*, 22(1), 289-308.
- 중소기업진흥공단(2010), *기술창업사관학교 효율적 운영 방안에 관한 연구*, 109-113.
- 정양현·이충섭·이종대(2003), 대학과 연구소 창업보육센터 입주업체의 특성 및 창업보육 성과의 비교, *중소기업연구*, 25(3), 159-183.
- 최강득, 김영문(2015), 창업보육센터 매니저의 역량이 입주기업 경영성과에 미치는 영향: 지원서비스 요인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산업경제연구*, 28(1), 551-574.
- 최강득, 김영문, 조인석(2015), 창업보육센터 매니저의 고용안정성이 창업보육 성과에 미치는 영향, *벤처창업연구*, 10(1), 13-21.
- 최종열·정혜주(2006), 창업보육센터 지원서비스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연구, *인적자원관리연구*, 13(4), 167-190.
- 한국창업보육협회(2015), *기술창업가이드* 중소기업청.
- 황보윤·김재형·방중혁(2013), 청년창업보육센터 입주기업 성과에 미치는 지원 요인에 관한 연구, *벤처창업연구*, 8(1), 149-160.
- Carsrud A, Svrnson, E. & Gilbert, L.(2000), Creating an International High Technology Incubator : The Case of the UCLA Venture Development Program, *Journal of Enterprising Culture*, 8(2), 185-199.
- Cooper, A. C.(1985), The Role of Incubator Organizations in the Founding of Growth-oriented Firms, *Journal of Business Venturing*, 1(1), 75-86.
- Chandler, G & Hands, S. H.(1994), Market Attractiveness, Resource-based Capabilities: Venture Strategies and Venture Performance, *Journal of Business Venturing*, 9(4), 331-349.
- Cho, J. H. & Kim, W. S.(2009), A Study of Performance Factors on the Business Incubator Corporate, *Review of business & economics*, 22(1), 289-308
- Choi, J. Y. & Jeong, H. J.(2006), A Study on Efficient supporting Service for BI's Tenant, *Asia Pacific Journal of Human Resource Management*, 13(4), 167-190.
- Choi, K. D. & Kim Y. M.(2015), The Effect of Business Incubator Manager Capability on the Firms Management Performance: Focusing on the Mediating Role of Support Services Factor, *Review of business & economics*, 28(1), 551-574
- Choi, K. D., Kim, Y. M. & Jo, I. S.(2015), An Effect of Employment Stability by Business Incubator Manager on Performance by Business Incubation, *Asia-Pacific Journal of Business Venturing and Entrepreneurship*, 10(1), 13-20.
- Chung, Y. H., Lee, C. S. & Lee, J. D.(2003), Comparison of Characteristics and Performance between Firms in the Incubation Centers at University and Research Institute, *The Asian Pacific Journal of Small Business*, 25(3), 159-183
- Gibb, A. A.(1990), Design effective programmes for encouraging the small business start-up process, *Journal of European Industrial Training*, 14(1), 17-25
- Hwangbo, Y, Kim, J. Y. & Bang, J. H.(2013), Impact of Youth Startup Business Incubating System On the Startup Business Performance, *Asia-Pacific Journal of Business Venturing and Entrepreneurship*, 8(1), 149-160.
- Kim, C. K.(2011), *A study on the Operating Performance Factor of the BI's tenant*, DAEHAN Association of Business Administration proceeding book, 171-190.
- Kim, K. H.(2006), Industry-University Cooperation and Business Incubation Center, *Korea Technology and Information Promotion Agency for SMEs*, 5(10), 12-18
- Kim, M. S., Hwangbo Y. & Kim H.(2010), A study on Influence to Business Performance of Business Incubator Company via CEO's Characteristics, *Asia-Pacific Journal of Business Venturing and Entrepreneurship*, 5(2), 33-57
- Klofsten, M. & Mikaelsson, A. S.(1996), Support of small business firms: entrepreneurs' views of the demand and supply side, *Journal of Enterprising Culture*, 4(4), 417-432.
- KOBIA(Korean Business Incubation Association)(2013), *Business Incubation Center Managing Guide*, Small and Medium Administration
- Lee, D. H.(2000), *Management Characteristics & Success Factors of Korean Business Incubation Policy*, Science & Technology Evaluation and Policy Institute Research Report.
- Lee, S. S. & Choi, J. H.(2001), A Study on the Critical Success Factors of Business Incubator, *Asia Pacific Journal of Small Business*, 23(4), 155-177.
- Lichtenstein, G. A., Lyons, T. S. & Kutzhanova, N.(2004), Building Entrepreneurial Communities: the Appropriate Role of Enterprise Development Activities, *Journal of the Community Development Society*, 35(1), 5-24.
- Mian, S. A.(1977), Assessing and Managing the University Technology Business Incubator: an Integrative Framework, *Journal of Business Venturing*, 12(4), 251-285.
- Small & medium Business Corporation(2010), *A study on the Effective Management Plan of Technology Startup Officer Training School*, 109-113.
- Smilor, R. W.(1987), Managing the Incubator System: Critical Success Factors to Accelerate New Company Development, *IEEE Transactions on Engineering Management*, 34(3), 146-155.
- Strodbeck, T. & Terry, D.(2010), *The Fundamentals of Incubator Management*, NBIA's Preconference Institute.
- Yang, H. B.(2000), *The Current Practice and the Efficient Policy of Business Incubator*, Korea Institute for Industrial Economics & Trade
- Yang, H. B., Song, H. Y. & Kim, H. S.(2002), A Study on the Assessment of Korean Business Incubator, *Asia Pacific Journal of Small Business*, 24(1), 25-52.
- Yoon, J. R. & Kim H. J. (2011), An Exploratory study on the Performance Factor of Business Incubator Enterprise, *Korean Review of Management Consulting*, 2(1), 15-42.

Impact of Start-Up Incubator Service On the Start-up Performance

Hwangbo, Yun*
Kim, Jae Hyoung**

Abstract

The study aims to examine the impact of Start-Up Business Incubator System on Performance of the Start-up Graduated from the Business Incubator. This has analyzed 813 startups which had supported by Seoul Metropolitan City in particular from 2009 to 2010.

Empirical analysis has choosed business room for free, startup grant for operation, education & coaching support, consulting support by practitioner, promotion & new market opening support and collaboration support among startups in the business incubator as independent variables and also implemented startup success satisfaction degree as a dependent variable.

The results shows that the degree of satisfaction on start-up activity support fund for entrepreneur and the degree of satisfaction on collaboration support among firms in the business incubator have statistical significant impact on start-up success satisfaction degree.

The study has an implication that it provides a basic data on policy support strategies by central and local autonomous governments that facilitate entrepreneurs to achieve start-up business goals by understanding the factors that affect the business performance of entrepreneurs. In addition, the study offers new directions for entrepreneurs in a way that promotes the start-up performance by business room for free, education & coaching support, consulting support by practitioner, promotion & new market opening support which were investigated as statistical insignificant constructs, so that the author expects new studies about more effective business incubator system to enhance the performanc of start-up in business incubator.

KeyWords: business incubator, business incubation system, startup performance, collaboration support

* Associate Professor, Graduate School of Global Entrepreneurship, Kookmin University, yun88@kookmin.ac.kr

** Corresponding Author, Manager, Seoul Business Agency, kimjh@sba.seoul.kr